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5곳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고창·부안·익산·임실·전주 5개 시·군... 내년 80여회 이상 공연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대상지 및 공연콘텐츠 공모에서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전통 한옥경관을 활용한 지역특화 공연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고창 (사)고창농악보존회 △부안 포스댄스컴퍼니 △익산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임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전주 런파이브 등 총 5곳이다. 해당 시·군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80여회 이상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고창 지역은 (사)고창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작품 '이팝:소리꽃'이 고창농악전수관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20시에 진행된다. 작품은 고창 천연기념물 중산리 이팝나무를 모티브로 소리꾼 진채선이 최초의 여류 명창이 돼 가는 성장스토리를 농악과 판소리로 다채롭게 풀어가는 국악뮤지컬이다.

부안 지역은 포스댄스컴퍼니 주관으로 작품 '도깨비당산'이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19시 30분에 진행된다. 작품은 부안 궁항 도깨비 불 당산 문화 소재를 이용한 콘텐츠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후세계에서 도깨비로 환생해 당산의 불이 되는 역동적 판타지 스토리로 구성된 난버벌 퍼포먼스다.

익산 지역은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주관으로 작품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작품은 허균이 함라에서 유배 생활을 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허균이 길동을 만나 함라의 맛과 멋을 즐기고, 길동과 마을주민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려낸 국악뮤지컬이다.

임실 지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춤추는 상쇠 '어화범님'이 필봉문화촌 취락원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20시에 진행된다.

작품은 마을굿을 지켜야 하는 주인공 '봉필'이 마을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모내기, 물레질, 혼례, 상여와 같은 전통적인 농촌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연회를 중심으로 한 K-관 뮤지컬이다.

전주 지역은 런파이브의 창작댄스컬 '전주비빔밥:그 맛(味)의 시작'이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작품은 1885년~1910년대까지 전주의 근대사에서 전주비빔밥의 탄생과 명성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해학적인 댄스컬로 구현한 공연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 공연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내년에 진행되는 한옥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7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순창 청소년수련관서 오늘 '관포지교' 주제 3년 만에 진행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전북도립국악원,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이 손을 잡고 지난 2017년 6월 창단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가 20일 오후 7시에 순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올린다.



2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관포지교(管鮑之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열었던 정기연주회 이후 3년 만에 행복한 예술여행을 국악오케스트라 선율에 담아낸다.

이번 연주회는 1부는 가야금중주곡, 신민요, 영남설장구 순으로 진행하고 2부는 관포지교, 거문고와 아쟁병주를 위한 대화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살리고 국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가야금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부들부들' 등을 시작으로 단원 모두가 함께하는 관현악 '쑥대머리', '담쟁이', '동요메들리'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매주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 9명이 순창을 찾아 청소년 단원들에게 가야금·거문고·해금·아쟁·대금·소금·신디·피리·태평소·타악 등 국악의 다양한 악기 교육과 국악 연습을 지도해 오고 있다. 국악연주를 통한 전통예술 교육으로 자존감과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 방점을 두고 합숙캠프도 함께 운영한다.

최영일 군수는 "국악이라는 생소한 예술 분야에 당당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함께한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닥무지 재현 행사' 열린다

21~22일 흑석골 '한지골' 문화 재현

전주천년한지관은 21~22일 이틀 간 '닥무지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

닥무지란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탁나무를 숲에 넣고 썬다. 썬다를 벗겨내는 것으로, 전통한지 제조 과정 중 다탁나무 수확 이후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작업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다탁목 재현 행사는 과거 김장철이 지난 후 전주 흑석골에 거주하는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로 다탁나무를 수확하고 다탁목 작업을 진행해 왔던 '한지골' 문화가 있다. 이를 수십 년이 지난 후 흑석골에 위치한 전주천년한지관에서 다시금 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개관한 전주천년한지관은 전통한지 계승과 문화화산 사업을 위해 △전통한지 및 원료보급 △전통한지 후계 교육생 양성 △전통한지 제조교육 △전통한지생활문화 활용 등 6대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전통한지 원료보급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전주 내 농가에서 수매한 전주산 다탁나무를 한지관의 전통한지 제조시설을 통해 12월부터 다탁목 작업을 진행, 전통한지 생산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원료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더욱이 이를 흑석골 주민, 그리고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다탁목 재현 행사로 확대해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탁목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의 큰 잔치로 재탄생

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닥무지 재현 행사는 다탁목 채취와 먹거리 나눔으로 진행된다.

이어 22일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다탁목 채취와 먹거리 나눔 외에도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탁나무부터 흑피, 청피, 백피를 거쳐 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한지 제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영 원장은 "닥무지 재현 행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탁목을 가공과정을 체험하며 흑석골 주민과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전통한지를 쉽게 접하고, 나아가 전통한지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미술협회 김제시지부, 임영하 현 지부장 연임 추대

김제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미술협회 김제시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영하 지부장은 임기를 마무리하고 차기 불출마의 뜻을 밝히며 임시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원 91명 중 위임 또는 참석자 70명 전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만장일치로 제25대 한국미술협회 김제시지부 지부

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제미술협회(지부장 임영하)는 2021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2022년 '제25회 김제 미술협회 회원전', '제14회 아름다운 김제전', '제23회 전국 벽화미술대전', '한·중 국제 미술 교류전'을 개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미술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여성 진화거리 숲속 동화마을 전람회' '김제역 공영주차장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시민들

을 위한 일상 속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였다.

임영하 지부장은 "앞으로 각 분과장을 임명하여 아닌 각 분과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하여 분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2023년부터는 민화 분과도 새롭게 신설, 상호 유대를 도모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은 미술인과 시민, 김제시와 의회와도 교감하고 소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사회적 기업 둘레가 지난 15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제2회 둘레 시민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마쳤다.

제2회 둘레 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리 개최

사회적 기업 둘레(이사장 안수용)가 지난 15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제2회 둘레 시민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마쳤다.

둘레 시민합창단은 2021년에 구성해 두번의 정기연주회를 열어 지휘자 차주중, 반주자 이수경 외 30명의 단원들과 같이 합창단을 알리고 있다.

1부에서는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시작으로 비목, 그리운 금강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첫 포부를 열었다.

찬조 공연으로는 남성 중창단 팀의 낙엽, 무조건을 선보이며 흥겨움과 재치를 보여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다. 두 번째 찬조 공연은 둘레 시민 뮤지컬 영웅담이 그날을 기억하며 곡을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불러 목격한 감동을 선사했다.

2부에서는 서툰 고백,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꽃을 불러 감동을 선사하며 화려한 막을 장식했다.

안수용 이사장은 "시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해 주신 둘레 시민합창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다음 연도에도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